



영·유아와 부모의 약물사용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황미영¹ · 방준석² · 손의동^{1*}

¹중앙대학교 약학대학, ²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2015년 2월 24일 접수 · 2015년 5월 17일 수정 · 2015년 5월 31일 승인)

Survey of Correlations on the Drug Use Pattern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Mi-Young Hwang¹, Joon Seok Bang², and Uy Dong Sohn^{1*}

¹College of Pharmacy,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South Korea
²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South Korea
(Received February 24, 2015 · Revised May 17, 2015 · Accepted May 31, 2015)

ABSTRACT

Background: It is thought that drug use of parents is related to that of young children. The status of drug among young children's parents and a correlation of wi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on drug use was surveyed by questionnaire. **Method:**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34 items, and the data was collected by 108 parents of young children from March to April of 2012. **Result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bout half of parents thought the minimum use of drug was better for health, and 44% parents thought drug is essential for cure. When parents had queries on prescription, they mostly consult with doctors and pharmacists. Most parents had a household medicine. A fever reducer was the most common household medicine (92.5%). They pick the household medicine by consulting with pharmacist. Parents usually checked the expiration date of drug before they use and they dumped the drugs when the expiration date was due (82.4%). Over half of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ok a dietary supplements. They got an information about a dietary supplement by associates (30.5%) and internet (19.4%). Most parents tried to follow the directions as prescribed.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parents stopped taking the drug when the symptoms disappeared. **Conclusion:** Drug use of parents and that of young children had a ver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suggesting that correct drug use of parents have an impact on their young children's drug use.

KEY WORDS: correlation, parents, drug use, young children

‘모든 약은 바로 독이다’라고 이야기한 파라셀수스의 말처럼, 약은 야누스의 두 얼굴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마법 같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독이 되기도 한다.¹⁾ 약물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의 경험 및 배경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는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질병의 예방, 빠른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고 약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²⁾

해마다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고 유통되면서 의약품 시장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소비자들이 처방 또는 비처방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할 경우, 약리학적 치료의 유용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에 있어 환자의

올바른 의약품복용은 기대하는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³⁾ 의약품 선택경로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동료나 친구의 권유로 약품을 선택한 경우 부작용 발생률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자가 투약한 경우는 14.5%로써 약사나 의사의 권유로 복용했을 때보다 높았다.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과거에는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들 또는 서적에 제한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인들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약물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처방전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이나 가족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⁵⁾ 현재 대한민국 성인들의 약물에 관한 정보습득이 주로 어떠한 경로

*Correspondence to: Uy Dong Sohn, College of Pharmacy,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South Korea
Tel: +82-2-820-5614, Fax: +82-2-826-8756
E-mail: udsohn@cau.ac.kr

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전문가들에 의해 약물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습득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의약품 복용에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성인의 의약품 사용 인지도 조사' 연구가 있었으나 경찰관이라는 특수한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조사대상에 한계가 있었다.²⁾

소아들의 올바른 의약품복용은 성인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소아과 영역에서 부적절한 복용에 따른 약물사고는 양적인 면에서 성인과 비슷하게 발생되지만 그 위험성은 성인의 3배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⁶⁾ 하지만 소아의 약물사용은 소아만의 단독변수로 볼 수 없고, 부모라는 제 3의 변수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⁷⁾ 즉, 직접 약물을 복용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의약품복용은 부모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들의 항생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이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8,9)}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2003)'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127건 중 부적절한 의약품복용으로 인한 사례가 47건(37.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⁰⁾ 이렇듯 부모들의 의약품사용은 부모 본인의 약물복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들이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지에 의해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영·유아들의 약물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유아 부모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2004년에 발표된 Crouch의 연구에 따르면, Utah Poison Control Center (UPCC)에서 6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report를 분석한 결과, 38.1%가 일반의약품에 의한 오·남용이었다.¹¹⁾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복용하고 있는지, 특히 의약품의 부작용에 취약한 영유아의 부모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처방과 조제의 책임이 분리된 상황에서, 가벼운 질환 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관련 지식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전문가들의 정보전달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들의 의약품사용에 대한 설문문을 통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약물사용이 실제로 영·유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부모의 올바른 약물사용이 자녀들의 약물복용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가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 본인의 의약품사용이 영·유아들

의 약물사용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본 연구에서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영아라 부르고, 만 3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부르며, 이들을 합쳐 영·유아라고 정의함) 108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놀이터나 백화점의 유아놀이시설에서 부모들을 직접 만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임의로 편의 추출되었다. 복수응답은 가급적 피하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응답자에 대한 조사는 성별, 연령, 자녀의 나이, 자녀의 입원 유무 및 부모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7개 문항이었다. 약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약에 대한 인식, 처방전 문의사항 및 처방 약제의 복용지도 만족도 등 3개 문항이었다. 약의 보관 및 유효기간은 상비약의 구비, 상비약 구입경로 및 약물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총 4개 문항이었다. 영·유아의 약물사용 실태는 영·유아 자녀들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복용유무, 처방받은 약제의 복용형태, 약제에 대한 지식정도, 부작용에 대한 반응정도 및 선호하는 약물에 대한 질문 등 총 10개 문항이었다. 부모들의 약물사용실태는 영·유아 부모들의 건기식의 복용유무, 처방받은 약제의 복용형태, 약제에 대한 지식정도, 부작용에 대한 반응정도 및 선호약물에 대한 질문 등 총 10개 문항이었다.

통계분석

각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답변에 대하여 하나만 선택하도록 응답을 유도하였고, 문항에 세부질문(예를 들어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약물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질문)일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해 복수응답을 요청하였고, 복수응답의 경우에는 각각 응답한 보기를 하나씩 분리하여 각각 고유한 응답으로 가정하고 빈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약의 보관 및 유효기간과 약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영·유아 및 부모들의 약물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율을 척도로 한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약의 보관방법 및 유효기간을 살펴 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독립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 · 유아의 약물복용과 부모들의 의약품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작업은 SPSS WIN 12.0으로 처리하였으며, 신뢰수준 95%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8세 미만의 영 · 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총 108명을 설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 89명(82.4%), 남자 19명(17.6%)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82.4%로 가장 많았고, 현재 직장인이라고 대답한 인원은 77명(71.3%)으로 과반수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모들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자는 52명(48.1%), 보통 36명(33.3%)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모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53명(49.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49명(45.4%)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을 묻는 질문에서 두 자녀 이상의 부모들에게는 복수응답을 하도

록 하였다. 만 2세 미만이 64명(43.0%)으로 만 2세 미만(1일~23개월)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이 중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2명은 모두 두 자녀이상의 부모로, 두 자녀 중 어린 자녀의 나이가 8세 미만으로 연구대상에 적합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52명(48.1%)이고 없었던 응답자가 56명(51.9%)이었다 (Table 1).

약에 대한 일반적 견해

“귀하는 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가끔적이면 안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54명(50.0%)로 가장 높았고, 질병치료를 위해 꼭 먹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48명(44.4%)이었다. 약물에 대한 생각은 성별, 연령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모들이 처방전의 궁금한 사항을 누구에게 문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이 69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사 66명(6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 · 유아 부모들은 처방전의 궁금한 사항을 주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처방 · 조제된 약제에 대한 복약지도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8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43명(39.9%), 만족스럽다가 9명(8.3%),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가 7명(6.5%),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의 보관 및 유효기간

영 · 유아 부모 중 집에 상비하는 의약품을 가진 응답자가 103명으로서 응답자의 95.4%가 상비약을 구비 중이었다. 부모의 집에 상비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의약품을 가정에 상비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집에 상비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를 묻는 질문에 해열제가 100명(9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합감기약 69명(63.8%), 소화제 68명(62.9%), 상처치료용 연고제 85명(78.7%), 소독제 46명(42.5%), 지사제 29명(26.8%), 관장제 5명(4.6%), 기타 1명(0.9%)의 순이었다.

상비약 구입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가 71명(6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가 18명(16.7%)이었다(Fig. 1).

상비약을 복용하기 전에 제품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80명(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명(25.9%)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상비 의약품을 복용할 때 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을 이미 경과한 의약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폐기한다는 응답자가 89명(8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Participant's number (n, %)	Total (%)	
	108 (100)	
Sex	female	89 (82.4)
	male	19 (17.6)
Age (years)	twenty	4 (3.7)
	thirty	89 (82.4)
	forty	15 (13.9)
Job	yes	77 (71.3)
	no	31 (28.7)
Health status	very good	18 (16.7)
	good	52 (48.1)
	average	36 (33.3)
	bad	2 (1.9)
Number of children (persons)	one	53 (49.1)
	two	49 (45.4)
	three	5 (4.6)
	four	1 (0.9)
Children's age (years)	1-2	64 (43.0)
	2-4	32 (21.5)
	4-6	36 (24.2)
	6-8	15 (10.1)
	8 ≤	2 (1.3)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52 (48.1)
	no	56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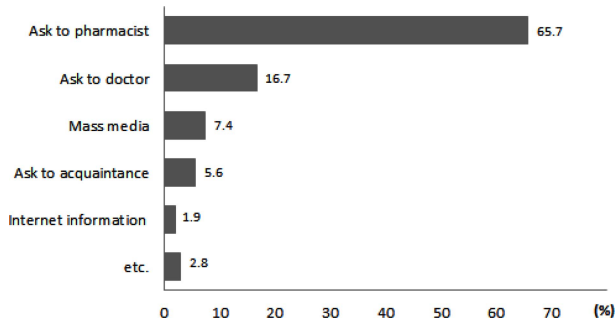


Fig. 1. Methods used to buy household medic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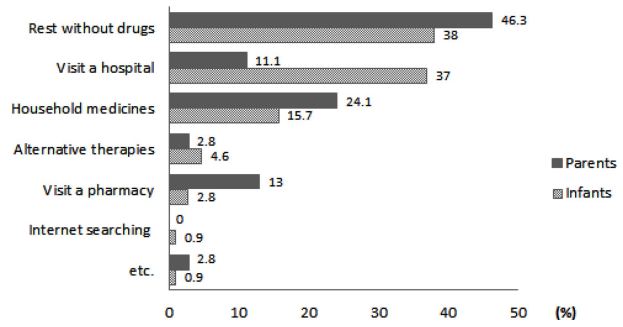


Fig. 3. The way of coping with mild disease like a c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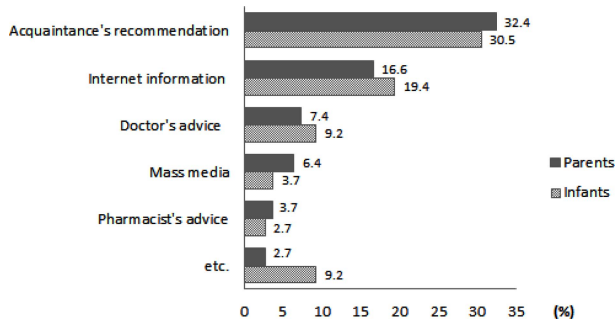


Fig. 2. The reason why parents and their infants start to take health functional products.

자의적으로 의견상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0명(9.3%), 약국으로 가져가 폐기한다는 응답자가 9명(8.3%)으로 나타났고, 약국에 문의하여 사용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영·유아 및 부모의 약물사용실태

위 연구는 영·유아 및 부모의 약물사용실태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영·유아 자녀의 약물 복용 시와 부모 자신의 약물복용 시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영·유아와 부모 복용 시에 따른 답변을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건기식 복용에 대한 질문 시, 자녀가 건강보조용식품 또는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복용 중이라는 응답이 6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48명(44.4%)이었다. 자녀가 건강보조용식품 또는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주변의 정보를 통하여 복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33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를 통해 복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21명(19.4%), 의사의 권유 10명(9.2%), 기사가 5명(4.6%), 신문 및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복용하였다는 응답자가 4명(3.7%), 약사의 권유가 3명(2.7%)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보조용식품 또는 건기식 복용에 대해, 복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0명(55.6%)으로 많았으며,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48명(44.4%)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건강보조용식품 또는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주변의 정보를 통하여 복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35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를 통해 복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18명(16.6%), 의사의 권유 8명(7.4%), 신문 및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복용하였다는 응답자가 7명(6.4%), 약사의 권유가 3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영·유아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복용 없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응답자가 41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조건 병원으로 간다는 응답자는 40명(37%), 집에 있는 상비약을 복용시킨다는 응답자가 17명(15.7%), 대체요법이나 식이요법을 선택한다는 응답자가 5명(4.6%),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한 후 일반의약품을 복용시킨다는 응답자가 3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감기나 가벼운 질환이 있을 때에 약복용 없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응답자가 50명(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에 있는 상비약을 복용하게 한다는 응답자가 26명(24.1%),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을 한 후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한다는 응답자가 14명(13%), 무조건 병원으로 간다는 응답자가 12명(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는다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즉, 감기나 가벼운 질환일 경우라도 영·유아 자녀가 앓을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Fig. 3).

처방받은 약의 복용에 대해 질문하였을 경우, 영·유아 자녀가 대체로 처방전대로 정확히 복용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응답자가 78명(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처방전대로 정확히 한 번도 빠짐없이 복용한다는 응답자는 28명(25.9%), 대체로 처방전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명(1.9%)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모의 경우 처방받은 약을 대체로 처방전대로 정확히 복용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응답자가 91명(8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처방전대로 정확히 한 번도 빠짐없이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13명(12%), 대체로 처방전대로 지키지 않

는다는 응답자가 4명(3.7%)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영·유아와 부모는 모두 처방받은 약을 처방전대로 정확히 복용하는 편이었다.

5일 이상 약물을 처방받았을 경우, 처방받은 약은 모두 복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유아 자녀인 경우 처방일과 상관없이 증상이 없어진 시점부터 복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처방받은 약은 모두 복용시킨다는 응답자가 39명(36.1%), 끝까지 다 복용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응답자가 9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신들은 처방받은 약을 처방일과 상관없이 증상이 없어진 시점부터 복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2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처방받은 약은 모두 다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24명(22.2%), 끝까지 다 먹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가 12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복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시, 영·유아 자녀들의 약은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65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 약제의 대략적인 기전을 확인해 본 후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35명(32.4%), 각 약제의 기전 및 제품명을 정확히 확인해 본 후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8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69명(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각 약제의 대략적인 기전을 확인해 본 후 복용한다는 응답자는 30명(27.8%), 각 약제의 기전 및 제품명을 정확히 확인해 본 후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9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에게,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처방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녀들의 약물에 대한 정보는 처방약 조제 시 약사에게 듣는다는 응답자가 35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다는 응답자가 18명(25%),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본다는 응답자가 11명(15.3%),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가 6명(8.3%)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변의 비전문가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부모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약의 조제 시 약사에게 듣는다는 응답자가 30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설명 듣는다는 응답자가 20명(32.3%),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본다는 응답자가 8명(12.9%),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가 1명(1.6%)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변의 비전문가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Fig. 4).

남은 약의 처리방법은 영유아 자녀일 경우나 부모의 경우일 때나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각각 60.2%, 54.6%), 잘 보관해두었다가 다음에 동일한 증상이 있을 때 다시 복용하도록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6.9%, 33.3%, 약국에 가져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는 응답자는 각각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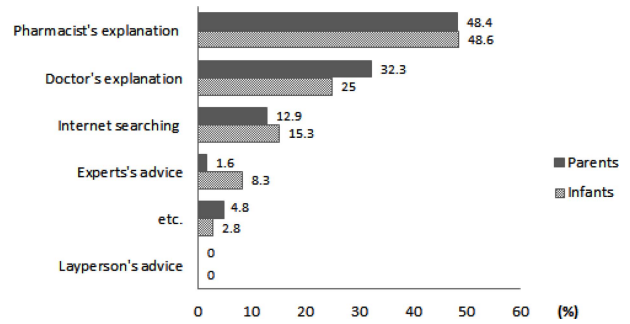


Fig. 4. The methods us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rescribed the dr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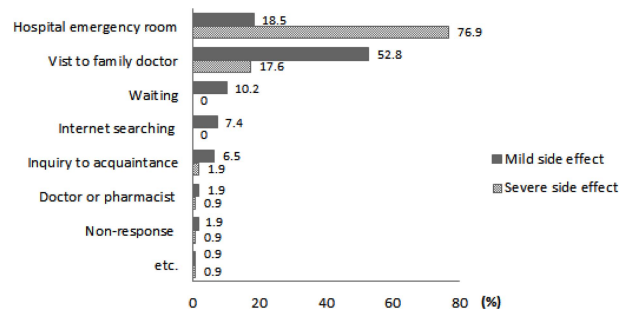


Fig. 5. The way of coping with side effects for infants.

10.2%의 순이었다.

약물복용 후 가벼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대처방법은 자녀일 경우 담당의사 또는 약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57명(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조건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20명(18.5%),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응답자가 11명(10.2%), 인터넷을 찾아보고 대처한다는 응답자가 8명(7.4%),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대처한다는 응답자가 7명(6.5%)이었다(Fig. 5). 부모 본인이 약을 먹고 가벼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 담당의사 또는 약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45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응답자가 21명(19.4%), 무조건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17명(15.7%), 인터넷을 찾아보고 대처한다는 응답자가 11명(10.2%),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대처한다는 응답자가 9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6). 부모는 본인보다 영·유아 자녀의 가벼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무조건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가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았다.

심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일 경우 무조건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가는 응답자가 83명(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당의사 또는 약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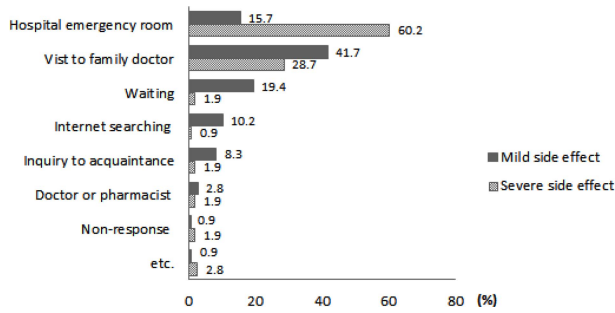


Fig. 6. The way of coping with side effects for par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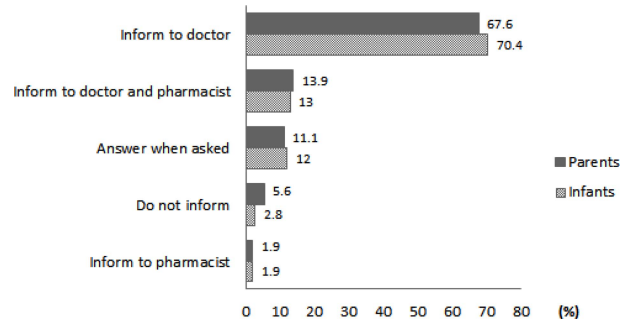


Fig. 8. The way how patients inform drugs they took previous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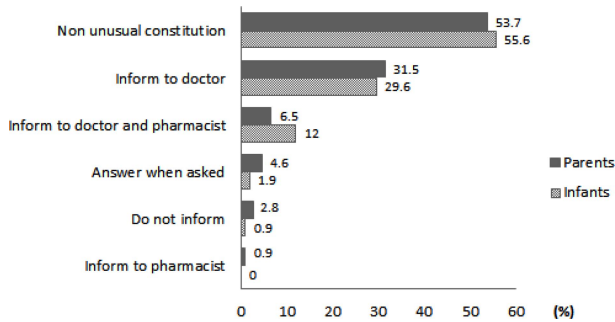


Fig. 7. The way how patients inform their unusual co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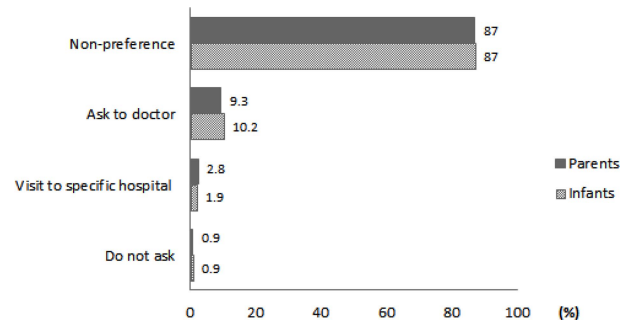


Fig. 9. The way how patients appeal their preference drugs.

(17.6%) 순이었다. 즉, 영·유아 자녀의 부작용 경중에 따른 대처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심한 부작용일수록 무조건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Fig. 5). 부모의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65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당의사 또는 약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31명(28.7%)이었다. 영·유아 자녀의 부작용 경중에 따른 대처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심한 부작용일수록 무조건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Fig. 6).

특이체질일 경우라면, 약을 처방받기 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자녀에게 특이체질이 없는 사람이 6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에게 말한다는 응답자가 32명(29.6%),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말한다는 응답자가 13명(12.0%)으로 특이체질을 가진 경우 질문 전에 미리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무응답이 58명(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에게 말한다는 응답자가 34명(31.5%),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말한다는 응답자가 7명(6.5%),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의사나 약사가 물어보면 말한다는 응답자가 5명(4.6%),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7).

약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 현재 복용중인 약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비슷한 답변을 보였으며, 의사에게 말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각각 70.4%, 67.6%), 다음으로 의사와 약사 모두에

게 말한다는 응답자(각각 13%,13.9%),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말한다는 응답자(각각 12%,11.1%)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8).

자녀의 특정질환에 선호하는 약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영·유아 자녀와 부모 본인의 경우에 대해 비슷한 답변을 보였으며, 선호하는 약이 없다는 응답자가 로 가장 많았으며(87%로 동일), 선호하는 약이 있다는 응답자는 13%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선호하는 약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유아 자녀일 경우 의사에게 선호하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응답자가 11명(10.2%), 선호약물을 처방해주는 병원을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2명(1.9%), 특별히 처방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자가 1명(0.9%)으로 나타났고, 부모일 경우에는 의사에게 선호하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응답자가 10명(9.3%), 특별히 처방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자가 3명(2.8%), 선호하는 약물을 처방해 주는 병원을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1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9).

부모와 영·유아 간의 약물 복용 상관관계

의약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은, 답변대상을 부모 본인과 영·유아 자녀로 각각 설정하여 중복 질문하였다. 총 10개의 질문문항에 대해 부모와 영·유아 자녀들의 약물사용실태를 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즉, 부모들의 의약품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drug use of infant parents and that of infants.

Questions	Correlation of parents with infants	
	ρ value	n
Q1.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s	ρ value	0.410**
	p-value	0
	n	108
Q2. Actions under small diseases	ρ value	0.222*
	p-value	0.021
	n	108
Q3. Usages in the prescription drugs	ρ value	0.396**
	p-value	0
	n	108
Q4. Extents of taking the prescription drugs	ρ value	0.436**
	p-value	0
	n	108
Q5. Knowledges about the prescription drugs	ρ value	0.646**
	p-value	0
	n	108
Q6. About how to handle the remaining drugs	ρ value	0.722**
	p-value	0
	n	108
Q7-1. Side effects or ADRs (mild-to-moderate)	ρ value	0.587**
	p-value	0
	n	108
Q7-2. Side effects or ADRs (severe)	ρ value	0.785**
	p-value	0
	n	108
Q8. Notice whether idiosyncratic reactions	ρ value	0.349**
	p-value	0
	n	108
Q9. Notice whether taking medications	ρ value	0.801**
	p-value	0
	n	108
Q10. Whether or not a preferred drug for the specific disease	ρ value	0.568**
	p-value	0
	n	108

ρ (Spearman's rho); *p < 0.05, **p < 0.01; ADRs (adverse drug reactions)

사용이 영·유아 자녀들의 약물복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들의 의약품에 대한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직접 대면 접촉하여 설문을 진행하다보니,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하

게 추출되어 결론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약에 대해 질병치료를 위해 꼭 먹어야 하는 것(44.4%)으로 생각하는 그룹과 가급적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50.0%)하는 그룹으로 크게 양분되었다. 약의 치료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과,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측면으로 인해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였다. 처방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주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였다. 소비자가 약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의사나 약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올바른 약물복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평균 3.53점(5점 척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2008년도의 김경례에 의해 조사된 ‘의약품 부작용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소비자들의 복약지도 만족도인 평균 2.88점(5점 척도)보다 높게 나타났다.¹³⁾

전체 응답자의 95.4%가 상비의약품을 가정에 구비 중이었고, 해열제(92.5%), 상처치료용 연고제(78.7%)를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었다. 2010년 김재영의 연구에서는 상비약 구비율이 89.4%였고, 상처치료용 연고제(84.3%), 소화제(82.6%)순으로 높은 구비율을 보였다.¹⁴⁾ 기존 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 높은 비율의 상비약 구비율을 보인 점과, 높은 구비율을 보인 제품이 해열제였던 점은 영·유아 부모라는 조사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응답자들은 주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었다(65.7%).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면, 다른 경로의 정보에 의해서 약물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상비약 구입 시 약사의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약물복용 전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74.1%) 있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지고 화학적 성분이 변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약물복용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폐기하는 것이 좋다.¹⁾ 82.4%의 응답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그냥 버리고 있었다.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기관 및 단체가 수립, 추진 중인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¹⁵⁾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낮은 홍보효과를 보인다면, 기존에 시행중인 방법을 재정비하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소비자에게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약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므로 함부로 폐기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동·식물들의 섭취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이 되므로 사용 후 남은 약, 변질된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 등을 처분할 때 함부로 폐기하는 것

은 지양해야 한다.

영·유아들과 부모들 중 55.6%가 건강보조용식품 또는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주변인이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건식을 복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약사와의 상담으로 주로 상비약을 구매한 것과는 달리, 건기식은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복용경험자의 추천이나 소문에 의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벼운 질환 시 영·유아 자녀들은 충분한 휴식(38.0%), 무조건 병원(37.9%)의 순으로 행동하였으나, 부모 본인은 충분한 휴식(46.3%), 집의 상비약을 복용(24.1%)하는 순으로 행동하였다. 부모 본인 질환에 비해 영·유아 자녀들의 질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약 복용방법은 처방전대로 정확히 복용하려고 노력하거나 처방전대로 정확히 복용하고 있었다. 처방약은 과반수 이상 증상이 없어진 시점까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및 부모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영·유아 부모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가 영·유아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조제 약은 특정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으로 처방에 따라 모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

처방약물의 이해도는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처방약물은 주로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는 반면(60%), 부모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기전을 이해(63.9%)하고 복용 중이었다. 자녀의 복용약물은 생소하고 본인의 약물은 자주 접해봐서 약물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약물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영·유아들이고, 영유아 본인이 약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처방약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혹시 모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약사나 의사를 통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정보를 전달하는 web site를 정비하고,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web site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부모들도 응급실 또는 담당 의사나 약사를 방문하여 대처하고 있었다. 특이체질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주로 의사에게 고지하는 편이었으나, 물어보면 말한다는 응답자도 꽤 있었으므로, 의사나 약사는 진료나 조제 시 특이체질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꼭 미리 질문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질환에 선호약물이 있는 경우는 13%로 영·유아와 부모의 응답이 동일하였고, 이는 부모의 약물에 대한 태도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보통 선호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사에게 선호약물 처방을 요청하고 있었다.

영·유아 부모들의 약물사용실태는 영·유아 자녀들의 약물

복용에 큰 영향을 준다. 소비자들이 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약의 성질, 복용방법,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가들 및 정부는 적절한 정보전달 및 교육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이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올바른 약물복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약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약의 보관 및 유효기간, 영·유아 및 부모의 약물사용실태에 대한 총 34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이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한 영·유아들의 약물복용에 대한 설문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의 약물사용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모 본인의 의약품에 사용이 영·유아들의 약물복용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의 의약품에 사용이 영·유아들의 약물복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올바른 약물사용이 본인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의 약물복용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 및 정부는 적절한 정보전달 및 교육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이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올바른 약물복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Lee SM. A medicine makes disease. Sodam Publishing, Co, Ltd., 2007.
2. Choi MY. Survey for drug usage in Korean adul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3. Cramer JA. Partial medication compliance: the enigma in poor medic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 1995;1(2):167-74.
4. Ha EP. The analyses to the experiences of adverse drug events and related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yungsan University, 2003.
5. Cho KW, Woo KW.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Medicine Information Through Web Log Analysi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2005;3(2):269-74.
6. Fortescue EB *et al*. Prioritizing strategies for preventing medication errors and adverse drug events in pediatrics in parents. *Pediatrics* 2003; 111:722-9.
7. San EJ. Concordance and children's use medicine. *BMJ* 2003; 27:858-60.
8. Taylor JA, KwanGett T, Mc Mahon 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 intervention in modifying parental attitudes about antibiotic usage in children. *Pediatrics* 2003;5:e548-e553.
9. Lee G, Friedman J, RossDegnan D, *et al.* Misconceptions about colds and predictor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Pediatrics*. 2003;2:231-43.
 10.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 survey report for the children's poisoning in the home, 2003.
 11. Crouch IB, Caravati ME, Booth J. Trends in children and teenagers' non-prescription drug abuse reported to a regional poison control center. *Am J Health Syst Pharm* 2004;61:125-27.
 12. Chae SI.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Hakyunsa, Seoul, Korea, 2005.
 13. Kim KR. A survey for the medication adverse effects.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2008.
 14. Kim JY, Baek BS, Problems and Solutions of OTC drugs' sales system,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2010.
 15. Press releas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 pilot project for the recovery process of the wasted drugs in the home. 2008.
 16. A survey report of the storage and safe use of the home medicines. Consumer safety center of the Korean Consumer Protection Board, 2005.